

—홍보물과 성

내가 좋을 땐 너도 좋겠지?

김정태 / 의학박사

여기 사상 어느 시대전 세대간의 차이는 여러 면에서 있어왔을 것이다. 또한 그 시대의 어른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에 항상 불안을 느껴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요즈음 같이 큰 변화를 보이는 일은 아마 있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불과 2~30년 사이에 엄청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구세대는 물론 어찌면 본인들 자신도 미처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 흔히 '이유없는 반항'이라는 말로 표현되듯 성장과정에서 겪는 변화를 자신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그러한 어떤 일들이 다행히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다면 지내고 닳을 때는 큰 상처는 남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얼떨결에 범위를 넘었을 때는 자신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에서 크게 잘못된 범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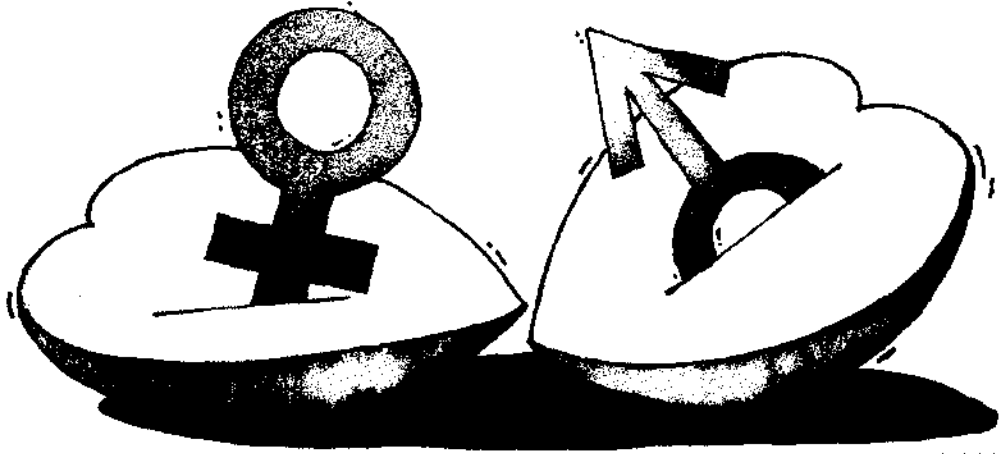
매스컴과 성

이러한 잘못 중에서도 성문제는 한층 더 심한 말을 들어서 '파렴치범'이라는 칭호까지 받는다. 성의 문제는 남녀노소 다들 것이 없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성은 많은 경우 지나친 매스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대중잡지의 3분의 2는 각종 선전물이고 이들 선전에 나체에 가까운 여성들이 활용된다. 내용으로 보아서야 성문제와는 전혀 무관

한 경우일텐데도 등장인물이나 포즈는 그러하다. 어른들의 시선도 그쪽으로 가는데 젊은이들의 경우야 너무나 당연하다. 인쇄매체가 아닌 타정보매체의 경우에도 양상은 다르지 않다. 선정적인 옷차림에 몸짓 하나하나가 남녀 모두를 성적인 충동으로 유인하도록 되어 있다. PR 시대의 상징으로 판매율 또는 시청율을 의식한데서 생겨나오는 현상으로 성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긴 세월 배일에 싸여와 흥미롭기 그지없는 흥분거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술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경제발전이란 현상이 자연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할 우리 주변의 성문화를 어지럽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자연으로서의 성

여러차례 언급하지만 성이란 자연현상으로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생리현상이지 누구와 겨루어야 하거나 자랑을 해야 하는 대상일 수는 없다. 사람들이 세상을 길게 산 연휴에는 이런 정도의 이치는 이미 알게 된다. 따라서 선정적인 표현들은 자연히 아직은 성을 잘 모르는 젊은층에 자극을 주는 것이 되고 불필요하게 오도를 하게 된다. 성은 자연현상이고 하나의 배설현상이다. 그러나 대소변의 배설과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성은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일러스트레이션/이정화

무방하다. 신부나 비구승들은 성생활을 하지 않고도 일생을 산다. 수녀나 또는 평생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도 성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하여도 생명에 이상은 없다. 또 다른 특징은 성은 즐길줄 아는 사람에게는 쾌감의 극치를 느끼게 해준다. 이점이 여타 배설로 느끼는 쾌감과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그 순간의 짜릿함을 느끼기 위해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 이를 예방하고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 성은 있어야 할 양상보다 훨씬 엄하게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지키며 살아왔더라면 어쩌면 성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에 더 흥미를 느끼곤 문제를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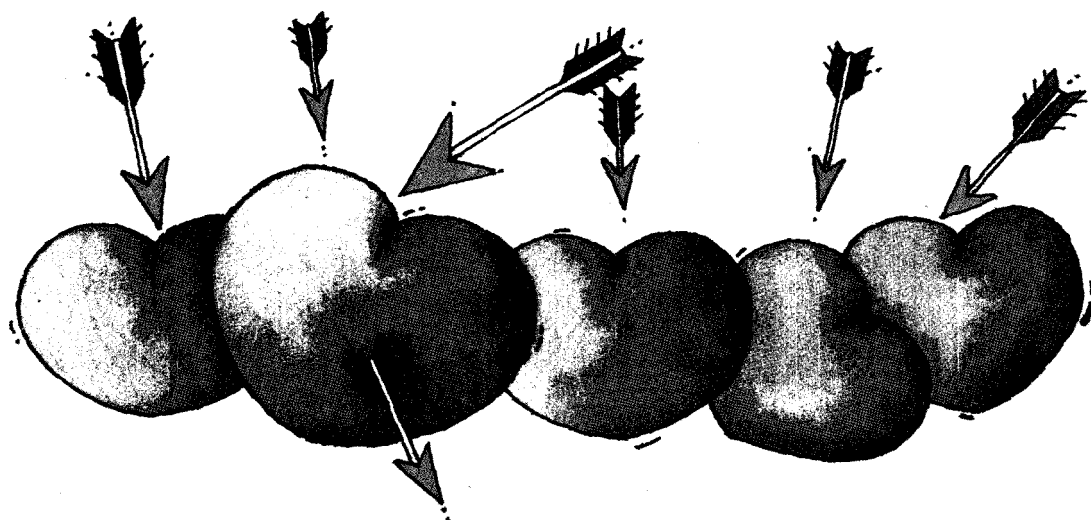
자유로운 성의 댓가

한편 성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드렸었기 때문에 사회는 현재 일부일부(一夫一婦)제를 인정하고 절차를 밟아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 사람들은 가정밖으로 나가려고 야단이다. 남존여비의 시대에는 남성들의 전유분야였던 혼외정사다. 그러던 것이 남녀동등의 사조가 되면서 어느 분야에서든 뒤지기를 원하지 않는 여성들이 뒤질세라 가정밖의 성을 향유하려 한다. 하긴 동등이라고 한다면 이미

성의 즐거움을 알게 된 여성의 경우에 그랬다하여 나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나날이 이혼율이 높아지고, 여성이라고 결코 희생이나 인내를 원하지 않는 까닭에 버젓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고아원에 보내지거나, 소년 소녀 가정 등으로 분류되어 몇몇하지 못하고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한다. 물론 위의 경우들이 반드시 부모의 성문제 때문에만 야기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경우 경제적인 사정이 이유일 수 있으며 아버지의 도박이나 술버릇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모의 불륜도 적지않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상태는 나아가 아이들 자신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10대 아이들의 각종 범죄 뒤에는 거의 모든 경우에 가정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가 좋아졌다 해야 하는지 아닌지 평가의 쟁점이 다를 것이나 여하튼 여성들이 얻은 자유의 댓가는 가정이나 사회의 구성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성

그러나 아직도 주변의 많은 여성이 성의 본체를 모르는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나아가 모든 것을 알 것으로 여겨지는 남성들도 실제로는 별로 아는 것이 없고 그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알게 된 사실만이 전부라 믿고 생활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더



라도 이런 자기식 또는 자기류의 성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특별한 모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고 있는대로 행위를 하여 즐길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 다만 성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므로 나만 즐기는 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 점에서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성을 터부시했던 시대의 여성들은 부부간에서도 성을 제대로 즐기지 않는 것이라 여겼고 그 시절의 남성들은 그들 역시 그러한 상태는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여 항상 마음놓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기 일수였다. 여성은 느끼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고 이 때문에 여성은 폐경과 더불어 성욕구가 없어지는 것이라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여성은 성욕구가 폐경과 무관하게 길게는 90세에 이르도록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마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두사람의 협조가 절대적

요즈음의 젊은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남성들에게 즐기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왜 너만 즐기느냐고 덤빈다. 그러나 상대도 어찌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신은 사정을 하는 행위로 쾌감을 느꼈는데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는 말인지 실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때의 이상태가 사실은 그대로 자연적인 현상인 것이다. 신혼부부가 실제로 첫날밤-형식적인 첫날밤이 아닌 실제의 첫

행위-을 함께 즐겼다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신적인 충족감 또는 어떠한 소속감일 것이고 말은 못해도 내심으로는 이런 행위가 뭐가 즐겁다는 말인가 라며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장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결국 부부의 성행위가 서로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두사람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따라서 그러기에 앞서 남녀의 성이 어떤 모습이라는 지식을 올바르게 가져야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자로 상대를 재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성은 성인대 차이가 있을려고? 내가 좋을 땐 상대도 좋겠지."란 개념으로는 진정 상대를 위한 또는 두사람의 협조로 원만한 성생활로 이끌기 위한 행위방법을 찾아내기는 어렵게 된다. 이때에 사랑이란 감정이 앞서게 되면 상대를 위해주고 싶은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다. 부부간의 성이 아닌 경우에 이러한 여유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인데 다만 금지된 장난을 하는데서 가져볼 수 있는 심리적인 호기심이 쉽게 남녀를 흥분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이때에도 두사람이 이미 성에 익숙한 경우라면 순간적 쾌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어느쪽 일방이 즐기는 순간을 가질 뿐이 된다.

항간에 쉽게 나도는 선정적인 홍보물들에 올바른 판단 없이 유혹을 느끼는 일은 역시 아직은 자신이 성을 옳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A**